

대선후보 오늘밤 원탁토론...사회는 손석희

JTBC 8시40분 4차 TV토론

- **문재인**
“비전 제시해 토론 주도”
- **안철수**
“미래 내세워 이미지 쇄신”
- **홍준표**
“직설화법으로 존재감 부각”
- **유승민**
“경제 전문가 이미지 각인”
- **심상정**
“구체 공약으로 진검 승부”

세 차례의 대선후보 방송토론 결과, 각 대선후보들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지만 취약점을 보여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에 후보들은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캠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명의 후보는 지난 23일에 이어 25일 밤

8시40분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후보 TV토론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다.

이날 토론은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후보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2시간 50분간 진행된다. 각 후보는 지금까지 토론회에서 지적된 단점을 보완해 최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3일 토론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자세로 균형 잡힌 의견을 보여줬다”며 “색깔론을 앞세운 네거티브 공세에 팩트를 제시하고 신뢰를 얻는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회고록 논란’의 진위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토론이 그쪽으로 쏠려 우리의 비전을 말할 수 없다”며 “상대 지적을 ‘팩트’로 응수하고 국정 기조를 되짚는 식으로 토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제기해온 ‘안철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 등 흑색선전의 실상

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평소 자신의 장기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 “저에 대해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3회차 토론 가운데 정치분야가 주제였던 이번이 유일하게 네거티브 문제를 짚고 갈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가짜뉴스 배포’와 문자폭탄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짧게 지적한 다음 토론회 주제로 돌아와야 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남은 경제, 사회분야 TV토론을 ‘미래’를 내세워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토론에서 강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설적인 표현 방식으로 강한 인상은 남겼으나 중량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23일 토론에서는 ‘돼지 흥분제’ 논란으로 집중적인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사실상 토론에서 소외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에 홍 후보 측은 좌우 프레임에 더 선명히 해서 보수 지지층에 호소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 문 후보를 향한 비판을 더 날카롭게 해 보수 대표후보로 존

재감을 확실히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측은 그동안 TV토론에서 유 후보가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인변으로 토론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 후보 측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유 후보 본인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향후 이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선관위 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경제학자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유 후보의 정책 능력이 빛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은 정책 면에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며 가장 차별화한 면모가 있었지만 다른 후보 간 ‘네거티브’ 실천에 묻혀 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심 후보는 ‘돼지흥분제’ 논란을 일으킨 홍 후보에 명확히 선을 긋고 ‘송민수 회고록’ 등 이슈에도 개입해 비판할 것을 비판한다는 의미를 심어준 만큼 이제는 준비된 정책들을 제대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사드배치 찬성’ 당론 변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상임대위 위원장인 박지원 대표는 2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과 관련, “사실상 당론이 (찬성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드 찬성 입장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 일단 서면으로 결의를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9명 현역 의원 중 30수소 의원들은 아직 반대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주춤하는 것에 대해선 “태풍은 강하지 만 길지 않다. 아마 2주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좀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다음 주말부터는 긍정적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문재인공포증’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날 TV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안 후보 집권시 평양 대사를 하면 좋겠다’는 박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선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지금 군소후보도 다 (토론회에 참석) 하니까 산만하고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완주 의지에도 단일화 압박

투표지 인쇄 전 이번주 마지노선...바른정당 의총 찬·반 격론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24일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다.

그러나 같은 날 소속 의원 절반의 요구로 후보 단일화 등 진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소집되면서 당 분위기는 온종일 뒤숭숭했다.

유 후보는 이날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회백 조직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준비 현황을 살펴봤다. 유 후보는 ‘대회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올림픽 성공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목은 강원 유세보다 유 후보의 거취 문제에 쏠렸다.

바른정당이 이날 밤 의총을 열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단일화 내지 중도 사퇴 촉구 등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내에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안철수 또는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야 당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치했고 일부 의원은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며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의총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유 후보도 오후 유세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의총에 참석했다.

이날 강원 중앙시장에서의 유세를 한 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분명하고, 제가 (서울로) 돌아가서 제 생각을 얘기할 것”이라며 “의총이 무난하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내에서는 아직 단일화나 후보 사퇴 등의 결론을 내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이번 의총은 강경파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는 설명이다. 의원들간 난상토론 이후 유 후보의 의견을 듣고 당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서 통합 외친 DJ·YS 아들 김홍걸·김현철

김부겸 의원과 5·18 묘역 참배

지역민 만나 문재인 지지호소

김정숙 여사 민심행보 이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와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대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과 함께 24일 광주를 찾았다.

이들의 광주 방문은 부산과 목포·대구의 영·호남 화합에 대한 상징성을 앞세워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앞세운 ‘자녀 마케팅’에 대한 골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 등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묘역을 찾아 함께 참배하고 지역민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는 이날 오후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신 점 때문에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앞줄 오른쪽) 국민대 특임교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협력을 다짐하며 김부겸(가운데) 공동 선대위원장과 목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

홍걸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중앙당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된 김현철 교수는 “시대정신인 화합과 통합의 대통령으로서 문 후보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영호남 화합을 위해 애쓰는 점

에 있고, 김홍걸 위원장과의 만남도 민주 세력의 재결집과 망국적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이날 또 다시 광주를 찾아 오전 11시부터 광

주공원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경로당을 찾은 등 노년층 민심잡기에 나섰다. 저녁에는 ‘노무현 국립묘지’로 알려진 서구 양동시장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지역민들과 접촉 면을 늘렸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홍준표, 보수표 결집 총력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최근 보수층 탈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보수표를 다시 끌어와 ‘문·안·안 3강(強)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일환이다. 홍 후보 측은 대선 중도 사퇴 촉구 등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내에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안철수 또는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야 당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치했고 일부 의원은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며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앞서 의총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유 후보도 오후 유세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의총에 참석했다.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염동열 전략기획본부장은 24일 “오는 27~29일

쯤 되면 숨은 보수표까지 나타나 흩어진 보수표가 급속도로 결집해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가고, 다음달 초에는 ‘문·홍·안 3강’을 넘어 ‘문·홍 2강’ 체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안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 공략하면서 안 후보에 기울어졌던 보수·우파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또 흩어진 법보수 후보들을 모으는 보수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